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7월 30일(목) 제 3372호

교사 불법촬영·증거인멸 전북교사노조 "엄정 수사"

경찰간부 부친 증거인멸 혐의 입건
교권 침해·교실 안전 위협 지적
'제 식구 감싸기' 우려 제기
피해교사 보호·재발방지책 촉구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가해 학생의 경찰 간부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되자 교육계가 엄정한 처벌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향한 불법촬영과 증거인멸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공교육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전북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은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교사가 학생의 불법촬영까지 경계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전북교육청과 전북경찰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사법·교육적 절차를 밟고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도 없이 책임을 끝까지 물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정보통신 유지관리제도 허점…'명의장사' 여전

재직증명서만으로 선임 가능
실근무 검증 장치 사실상 부재
4대 보험 확인 의무화 목소리

(1)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기술자들의 이른바 '명의 대여'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현행 절차를 악용해 실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가 자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최대 5곳으로 제한해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적인 선임을 방지하고, 실제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기술자들이 다른 업체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별도의 유지관리업체에 자신의 자격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유지관리자로 선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선임 신고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무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지관리자 선임 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자가 실제 해당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는 발급 자체가 비교적 쉬운 반면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기술자의 실제 소속 회사와 근무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명의 대여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1인당 관리 건축물을 5곳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유지관리를 하라는 취지인데, 명의 대여가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임 단계부터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통신 장애 예방과 정보보안,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직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선임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선임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4대 보험 가입 확인 등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준호 기자

도·시군 노인회장단 간담회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을 비롯한 도·시군 노인회장단과 민선9기 어르신 정책 추진 방향 및 경로당 활성화 등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바이오기관, 미래산업 협력체계 강화

국공립·지자체 기관장 소통포럼
공동연구·정책사업 발굴 추진
정부 정책 변화 선제 대응

전북도가 도내 바이오 분야 주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는 2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바이오 국공립기관과 지자체, 출연기관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기관장 소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바이오 분야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전문역량을 연계해 공동 연구와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전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바이오기관장 소통포럼'은 도내 바이오 분야 국공립기관과 지자체,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로, 정부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및 협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홀수 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형석 부원장이 '미래 선도형 신산업 혁신 전략 및 로드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참석 기관들은 정부의 바이오 정책 방향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바이오기관장 소통포럼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한편 국가 공모사업과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도 국장은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앤 강력한 네트워크와 한 팀으로서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북이 농생명·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허남주 선출

중앙당 의결 거쳐 공식 임기 시작
"중앙·전북 잇고 지역발전 힘쓸 것"

허남주 위원장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기 도당대회를 열고 허남주 전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허남주 신임도당위원장은 전북대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북도의회 제10대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원광대 대외협력홍보처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허남주 위원장은 "소외된 전북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강한 전북도당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허남주 신임 위원장의 풍부한 정치 경험과 오랜 당 활동을 바탕으로 중앙당과 지역을 잇는 소통창구를 강화하고 전북의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조직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허남주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확정되며, 의결과 동시에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전북도,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막판 총공세

기획처 심의 대응 전략 점검
40개 핵심사업 집중 공략
9월 2일까지 특별활동기간 운영
정치권·시군 공조체계 강화

전북도가 29일 도청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기획처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정부심의에 대비한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획처 1·2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미반영·감액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3차 심의 등 남은 절차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획처 검토 과정에서 쟁점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국별 대응 논리와 설득 전략을 공유했다.

도는 기획처 단계 100대 중점관리사업 가운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마쳐 사업 완성도와 시급성이 높은 40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은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이다.

또 기획처가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 축소 등 조건부 협의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업별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획처 심의가 본격화되는 8월부터는 서울 상주반을 운영해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쟁점사업은 단계별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정부안 반영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2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이원택 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 기획처단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특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지휘부가 앞장서 기획처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 전방위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해 "예산 반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승패를 가른다"며 "기획처 심의 동향을 밀착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논리 발굴과 정치권 공조를 통해 단 하나의 도정 현안 예산이라도 더 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최적지"

기획행정위 예정부지 방문 점검
현장 성명 통해 최적 입지 강조

염영선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29일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예정부지인 남원시 운봉읍을 방문, 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남원시로부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청취한 뒤 예정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남원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제2중앙경찰학교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경찰교육을 위한 최적의 입지인 남원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 경찰 관련 교육기관이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기관의 균형 있는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은 100% 국유지를 활용한 경제성과 신속한 개발 가능성, 166만㎡ 규모의 넓은 부지와 특화교육이 가능한 확장성,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망과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경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치안 인력 양성과 경찰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와 경찰청은 경제성과 확장성, 균형발전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로 남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예결위, 추경 121억 삭감 '대폭 손질'

통합재활병원 98억 감액
연구용역 등 5개 사업 조정
집행부진·예산 이월 개선 주문
추경안 본회의 최종 확정 예정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10조 9,693억 원 가운데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 12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증액 편성됐으나 기정예산과 각 부서에 편성된 기존 연구용역비를 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 원을 감액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현 계획의 입지 적정성과 기존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대책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98억 원을 감액했다.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와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대상지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5억 원을 감액했다.

또 예결위는 예산안 의결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제출 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대상 여부와 이행 결과를 명확히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의 사업기간·총사업비·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충실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행부진과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해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 수당 지원 사업은 지역 모자의료센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지역 간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은 이번 예산 감액이 향후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지원 규모를 2025년 지원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신천지 의혹, 전대 후 여야 머리 맞대자"

전당대회 후 제도 개선 제안
합수본 신속·엄정 수사 주문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후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당 소속 구성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적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천지의 집단 입당 문제가 당대표 후보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합동수사본부가 이를 확인해 지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연구원, 전북 출생아 '1억 자산 형성' 펀드 제안

전북연구원 '아이희망펀드' 제안
출생 시 2000만원…20세 1억
지역기업 투자로 수익 창출
청년 정착 유도 모델 제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의 대물림'을 끊고, 전북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파격적인 자산 형성 프로젝트가 도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29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출생 시 적립한 2,000만 원을 20년 후 1억 원으로 키워 지급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군의 지원은 출산장려금이나 수당 등 단발성 소모 지출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실제 독립할 때 필요한 교육·주거·창업 자금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해 자산 접근성이 낮은 전북 청년들에게는 '기초 자산'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아이희망펀드'는 2027년 이후 전북 내 모든 출생아(2024년 기준 약 6,400명)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와 지자체가 1:1로 매칭하여 총 2,000만 원을 적립한다. 일반가구는 부모가 1,0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을 20%(400만 원)까지 대폭 낮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전문 운용사를 통해 자산의 60% 이상을 도내 혁신기업(이차전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에 투자해 연평균 8.2%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20년 후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만약 시장 상황으로 수익이 부족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전액 보전한다.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 타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하여 장기 거주를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펀드 자금이 전북의 유망 기업에 투자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자산이 지역 기업의 성장 자본이 되고, 기업이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고향의 성장이 곧 나의 자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20세에 1억 원을 받은 청년이 도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무이자 융자를 연결하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됐다. '전북아이희망펀드'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제안이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사례처럼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생산형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주덕진소방서 폭염 속 시민 안전 지킨다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생수·온열질환 안내문 배부 2인 1조 운영 등 대원 안전 확보

연일 폭염에 의한 도시민 온열질환 예방에 전주덕진의용소방대가 나서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해 보탬이 되겠다고"고 29일 밝혔다.

현재 폭염 온열환자 발생이 높아진 가운데 고령층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장소로서 예방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와 전주덕진의용소방대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폭염 예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전주덕진의용소방대 등 8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생수와 온열질환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했다.

아울러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 안전을 위해 2인 1조 운영과 수분 섭취 등 폭염 대응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의용소방대와 전통시장 폭염 안전순찰

폭염 시민안전의식 제고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29일 전주덕진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외활동이 많고 고령층 이용이 잦은 전통시장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장소로 꼽힌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한낮 야외활동 자제 등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 인원 2인 1조로 편성해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안전사고 우려 시 즉시 휴식 또는 활동 중단 등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전주덕진소방서는 매년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생수 나눔 행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는 29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JDS봉사단과 함께 무료 구강 검진 및 맞춤형 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전주시>

전주시·전북대 치과대학 의료 봉사

아동·청소년 110여명 대상 무료 구강 검진 및 진료 실시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양연미)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나섰다.

시는 29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JDS봉사단(Jeonbuk Dental Smile)과 함께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 및 맞춤형 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센터와 복지시설을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봉사는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오전과 오후 시간대별로 인원을 나누고, 보호자 동반 진료를 원칙으로 삼아 아동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JDS봉사단 의료진과 봉사원들은 아동들의 구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기초 검진을 시작으로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처치와 함께, 아동 눈높이에 맞춘 1:1 올바른 양치질 지도 등 맞춤형 구강 보건 교육도 병행해 아이들이 스스로 치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왔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JDS봉사단은 지난 1979년 설립된 치과대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보육원 아동, 무의촌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시와 전북대 치과대학은 지속적인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매년 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며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의료 복지 안전망을 한층 공고히 해왔다.

/정혜민 기자

임숙희 완산구청장 체감행정 실현 "약속"

동행복지·안심행정·생태환경·희망경제 운영

전주시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체감행정' 통한 시민 중심 구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임 완산구청장은 29일 2026년도 하반기 '구정 운영 5대 추진방향',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임 완산구청장이 발표한 이날 '체감행정' 제시 중점으로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구현과 시민 공감 구정 실현이 핵심이다.

임 완산구청장 5대 추진방향은 △시민이 공감하는 '체감행정'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동행복지' △시민 일상을 지키는 '안심행정' △일상에 쉼을 더하는 '생태환경' △활력과 상생의 '희망경제' 등이다.

앞으로 완산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시민 존중 도시'와 돌봄의 공백을 책임지는 '시민 돌봄 책임 도시' 가치를 구정 전반에 담아낼 방침이다.

특히 거창한 사업보다 시민이 생활하는 골목과 동네에서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구는 현장행정의 날 확대 운영과 '현장에 답이 있다' 동장 중심 현장행정 추진,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및 동별 맞춤형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구는 또 어린이부터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구 등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생애 맞춤형 돌봄·책임 복지 실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구는 앞으로 △재난·재해 대비 선제적·신속 대응체계 강화 △주민 체감형 생활안전 기반 구축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 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민 일상을 지키는 '안심행정' 구현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임숙희 완산구청장은 "도로 포트홀, 도심 쓰레기, 불법주정차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완산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8월 7일까지 생활·학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주시는 위기청소년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2026년 제2차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위기상황에 따라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법률 지원(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등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도 가능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15명 대상 심사 처벌보다는 선처 계도 제도

전주덕진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29일 개최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 계도 취지의 제도이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해 사건 경위, 전과 사실, 법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심사위원회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 15명에 대해 피해 사실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조영일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있어 무조건적인 법의 심판대 결과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사회 위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제28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 개최

29일 위원회 열고 주민·상인회 의견 반영 교목 식재 서곡 3·4길 정비 사전 자문 등 추진

전주시 '제28차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29일 개최됐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강병구 시 자원순환녹지국장과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회의에서는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보행환경 특화거리(은행로 구간) 조성사업의 식재 수종 변경 및 띠녹지 조성안'이 상정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도심 보행 환경과의 조화와 수종의 적합성,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안건은 은행로 경관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인회 및 실개천 추진위원회의 협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인 '서곡 3길·4길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명도 진행됐다.

이는 해당 사업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성 현안인 만큼, 오는 8월 공식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들에게 사업 취지와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선제적인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은행로 보행환경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전 설명이 이뤄진 서곡 3·4길 정비사업 역시 수렴된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한옥마을 은행로 일원에 풍성한 녹지공간 조성함과 함께 서곡 3·4길 정비사업처럼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사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도 있게 다루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 녹색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소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심정지·중증외상·응급분만 역량강화

전북소방본부와 전북대학교병원이 도내 119구급대원 30명을 대상으로 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북대병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 전문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 응급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강사로 참여해 이론교육과 시뮬레이션 실습을 병행했다.

교육 주요 교육내용은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기본 판독 △가슴통증 환자 평가와 영상의료지도 활용 △응급분만 및 신생아 처치 △아나필락시스 평가와 에피네프린 투여 △중증외상환자 평가와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전문심장소생술(ALS) 등 확대된 업무범위 중심의 전문처치 과정으로 구성됐다.

구급대원들은 실제 응급현장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정지, 중증외상, 흉통, 응급분만 등 다양한 응급상황을 반복 실습했다.

따라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았다.

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은 병원 전 단계에서 심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에게 확대된 업무범위 내 전문응급처치를 수행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아동 도서 지원 성금 기탁

롯데백화점 전주점 따뜻한 나눔 실천이 지역 아동들에게 백배 기쁨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최동희 전주점장은 29일 '지역 취약계층 아동 세대 도서 지원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최동희 전주점장은 조지훈 전주시장을 찾아 3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역사회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밝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 300만원은 전주시 맞춤형 도서 지원 사업인 '지혜의 반찬'에 전달돼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2004년 5월 완산구 서신동에 개점한 이후 지역 대표 유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다각적인 나눔 경영을 펼쳐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한부모 세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연탄 나누기 △대학생 장학금 후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전북상공업계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돼야"

서남대 의대 폐교 후속 대책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설립 촉구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장소와 관련해 당초 사업 취지와 정부 약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당초 설립 취지에 따라 전북 남원에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장소를 수도권 편의성이나 행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던 지역으로, 폐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감내해 왔다. 지역 의료기반이 악화된 것은 물론 대학과 연계된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발생했지만, 남원시와 지역사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부지 확보와 행정지원,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준비를 이어왔다.

또 남원은 전북 동부권뿐 아니라 경남·경북 서부권과도 인접해 있어,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경우 권역 내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응급의료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 공공의료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국립의전원을 다른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 변경을 넘어 서남대 의대 폐교 당시 정부가 지역사회에 제시했던 후속대책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에 따른 남원 설립이 이뤄져야 하며, 오랜 기간 설립을 준비해 온 지역사회의 기대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어느 지역이 더 편리한지를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의료인력이 가장 필요한 곳에 공공의료 기반을 세우기 위해 시작된 국가사업"이라며 "정부가 약속의 무게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당초 계획대로 남원에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어촌公 '혹서기 폭염 대비 안전점검'

관내 건설공사 현장 대상 기본 수칙 준수 여부 중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속되는 폭염 속 관내 건설공사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 농어촌公사는 29일 관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낮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북지역본부는 지역개발 사업 등 주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만약을 대비한 사고를 대비했다.

특히 점검은 혹서기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무리한 현장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북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맞춰 현장의 필수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안전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휴식장소 마련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휴식시간 제공 등 '물·그늘·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낮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거나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현장을 독려하고 있다.

김동인 전북지역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혹서기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건설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단 한 건의 온열질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폭염기 근로자 온열예방 지원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건강상담·예방물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정읍시 소재 공단을 방문해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펼쳤다.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정읍시 소재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활동은 건설현장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승현 기획이사는 무더운 여름철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작업환경과 폭염 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국민연금은 △보건전문인력의 건강상담과 기초 건강점검 △생수·냉음료와 아이스 쿨패치 제공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 안내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황승현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은 정읍시 소재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안전공공기관감사協 'SAFE-9 합동점검단' 출범

9개 안전공공기관 안전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한국전기안전공사(감사 허정환)가 회장 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가 28일 '세이프-나인(SAFE-9) 합동점검단'을 출범했다.

이날 강원랜드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에서는 세이프-나인 발대식을 열고 첫 합동점검을 했다.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9개 안전공공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감사가 참여해 안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세이프-나인 출범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현장 중심 실행 체계로 확대했다.

협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가 기관이나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이뤄지던 안전점검을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세이프-나인 합동점검단을 꾸렸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회장 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가 28일 '세이프-나인 합동점검단'을 출범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발대식 이후 점검단은 여름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강원랜드 리조트에서 에너지·교통·기반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시설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개별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복합 위험 요인을 기관 간 전문성을 결합해 보다 입체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9개 안전공공기관 관계자와 강원랜드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감사 현안과 세이프-나인 운영 방안, 합동점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감사는 "안전은 한 기관이 책임지는 시대를 넘어 함께 지키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전문성을 결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어린이 어부바멘토링 경제교육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은 지난 28일 전주파티마신협 혁신지점에서 빛나지역아동센터 22명 멘티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 지원사업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울러 신협 임직원이 인근 아동복지시설 아동 멘토로 참여해 협동과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문화체험 활동 등을 함께하며 아동 전인격적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전주파티마신협과 빛나지역아동센터는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7회에 걸쳐 신협 어부바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금융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저축과 소비, 신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혔으며, 미래 경제 주체로서 필요한 올바른 경제 습관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이 금융을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전주대학교, 인재육성 협력

농생명·그린바이오 미래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주대학교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추진하는 '농생명 그린바이오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과 바이오·식품산업 지원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지난 28일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생명·그린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발굴과 협의체 구성에 협력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인턴십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진흥원이 보유한 바이오·식품기업 네트워크와 연구·생산·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기업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 개발 및 창업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는 농생명융합기술원과 공동기기센터, 의과학대학, 산학협력단, RISE사업단 등 농생명·바이오 분야 교육·연구 조직을 기반으로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획,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참여기업 발굴과 산업현장 연계를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사진=경제통상진흥원>

롯데몰 군산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 앞장

지역 상생 협력 지속 모색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 롯데몰 군산점(점장 이성규)의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행사'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역 대표 대형 쇼핑몰인 롯데몰 군산점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CSR) 의지와 물적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롯데몰 군산점은 집객력이 가장 높은 1층 메인 센터홀 공간을 선뜻 제공하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형 상권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핵심 장을 마련해줬다.

행사 기간 동안 업종을 넘어 활약 중인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12개사가 참여해 대표 제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현장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홍보 공간을 함께 구성해 롯데몰을 방문한 수많은 고객들에게 기업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주말 동안(7월 17일~19일) 롯데몰 군산점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된 삐에로 풍선 아트,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현장 포토존 등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는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쇼핑몰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북도와 롯데몰 군산점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가 행사 만족도 검토 및 참여 기업 대상 지면 조사를 통해 수렴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고도화된 지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선뜻 든든한 파트너가 돼준 롯데몰 군산점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회공헌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대형 유통 플랫폼과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높이고 오프라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생 행사의 주요 내용과 소식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폭염 취약계층에 '시원 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9일 폭염 취약계층 위한 2026 '시원(COOL) 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일수 증가와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해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무더위 극복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산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손선풍기, 여름이불, 팔토시, 보냉백 등으로 구성된 '시원(COOL) 키트' 930박스를 직접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실효성 높은 폭염 대비 맞춤형 물품으로 구성된 4000만원 상당 '시원(COOL) 키트'는 도내 지자체를 통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폭염 취약계층 93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친 이웃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이번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ESG경영을 실천하며 현장에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나눔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피지컬 AI 원천기술, ㈜모레 통해 상용화

조형기 교수팀 개발
3건 기술이전
57억 규모 국가 R&D
연계 제품화 추진

전북대학교가 보유한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원천기술이 국방 및 공공안전 분야의 상용 기술로 개발된다.

전북대 산학협력단(단장 백기태)은 AI 전문기업 ㈜모레와 총액 3억 5천만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백기태 산학협력단장과 조형기 전자공학부 교수, 조형근 ㈜모레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참석해 기술이전 이후 현장 실증과 사업화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조형기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전역 위치 결정 방법 및 장치 △겹침 영역 추정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지도 병합 시스템 및 방법 △시각언어지도 구축 방법 및 장치 등 총 3건이다.

이번 기술이전은 단순 특허권 이전을 넘어 총 57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제품 개발과 현장 실증까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모레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기존 AI 인프라 역량을 공간지능 및 무인이동체 분야와 결합해 피지컬 AI 사업을 확대한다.

전북대도 피지컬 AI 국가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새만금 실증 인프라와 원천기술을 기업 역량과 연결할 방침이다.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AI 전문기업 ㈜모레와 총액 3억 5천만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조형기 교수는 "이전된 기술은 다수의 무인이동체가 공간을 공동 인식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공동연구와 현장 실증을 통해 국방 및 공공안전 현장에 활용되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계약심사로 예산 25억 절감

총 230건·922억 원 심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용역·물품 계약 총 230건, 922억 원 규모를 심사했다.

계약심사제는 입찰 및 계약 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3월부터 도입됐다.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 5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원가계산 방법과 주요 심사 사례를 담은 '계약심사 업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공유했다.

책자에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공사 532건, 용역 158건, 물품 498건 등 총 1,188건의 원가심사 과정이 수록됐다.

이홍열 감사관은 "계약심사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예산 절감과 함께 투명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부안군,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버블쇼' 성황

부안군은 지난 28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연 '환타지 버블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약 100명의 영유아가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특수 제작된 버블 도구를 활용해 우주선, 눈 꽃송이 등 다채로운 모양의 비눗방울을 만들어내며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냈고, 아이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하고 화려한 비눗방울의 향연에 환호하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공연은 단순히 눈으로 즐기는 관람형 공연을 넘어 아이들 각자의 머릿속에 있던 상상의 나래를 현실로 이끌어 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아이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대형 비눗방울 퍼포먼스를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신나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료로 진행돼 관내 많은 어린이집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공연에 몰입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성을 다채롭게 채워줄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군산시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위촉

국가유산 야행서
역사 및 문화유산 소개

군산시는 내달 개최되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관람객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를 29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간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들은 8월 15~16일과 21~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구 군산세관 본관,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 4개 국가유산에 배치돼 야행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쉽고 친근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는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초등학생들이 직접 국가유산을 해설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경험은 군산의 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가 이를 계승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지난해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시는 내달 개최되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관람객들에게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를 29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군산시>

/군산=지송길 기자

서부내륙권 관광 브랜드 '창작 음원' 모집

道문화재단, 내달 23일까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HERE, HEART Music Creative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창작 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부내륙권 관광 브랜드 'HERE, HEART'의 매력과 여행 감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창작 음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미만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은 보컬이 포함된 2분 30초 이상 5분 이내의 완성 음원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팀당 한 곡만 제출할 수 있다.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목이나 가사에 브랜드 슬로건인 'HERE, HEART'를 포함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편곡 참고, 가사 초안 작성, 녹음·믹싱 과정의 보조 도구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가사 전체 또는 멜로디 전체를 제작한 작품이나 기존 수상작, 표절이 의심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대상 1팀에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는 100만 원, 우수상 2팀에는 각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에는 음원 발매와 무대 공연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 또는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음원과 가사, 개인 또는 팀 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9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부내륙권의 지역성과 여행 감성이 다양한 음악으로 표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청소년 3:3 농구대회' 정읍지역 예선 성료

코트 위에서 펼친 열정
정읍·고창·부안 청소년 참가

제28회 정읍·고창·부안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정읍지역 예선이 지난 26일 정읍체육관에서 열려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가렸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정읍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정읍시농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정읍시가 후원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 증진을 돕고 정읍·고창·부안 청소년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정읍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8개 팀 32명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 결과 고등부에서는 호남고·정읍고·배영고 연합팀인 '앵클브레이커'가 우승을 차지했다.

'MMS'가 준우승에 올랐고 '배영고팀'과 '바이퍼스'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MMS와 배영고팀, 바이퍼스는 모두 배영고 학생들로 구성됐다.

중등부에서는 학산중·정읍중 연합팀인 '아메바 브라더스'가 우승했으며, 학산중 학생들로 구성된 '학산중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예선에서 입상한 중등부 2개 팀과 고등부 4개 팀은 오는 12월 고창군에서 열리는 제28회 3개 시군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본선에 정읍시 대표로 출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협동과 화합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군산예술의전당 내달 31일까지 바닥분수 운영

군산예술의전당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을 위한 바닥분수 가동에 들어갔다.

바닥분수 운영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피서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의전당을 명품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8월 20일까지는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시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 이용객인 만큼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예술의전당 바닥분수가 올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아이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적극행정하면 점수 쌓인다" 정읍시, 실천 중심 보상제 시행

정읍시가 적극행정과 협업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과 협업을 실천한 직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업무 현장에서 이뤄진 직원들의 노력과 실천을 수시로 발굴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점수 부여 대상은 △창의적인 개선안 제안과 채택 △능동적인 민원 처리 △부서 간 협업 과제 추진 △시민 불편 해소와 공익 증진 등을 통해 행정 품질 향상에 기여한 직원이다.

적립된 점수는 분기별로 소멸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해 관리한다. 일정 기준에 도달한 직원에게는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행정과 협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행정의 기본 자세"라며 "직원들의 작은 노력과 실천도 제때 인정하고 보상해 자발적인 혁신과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여름철 음주 위험성 및 안전수칙 안내

익산시가 여름철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청년 중독예방 서포터즈와 함께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탈수와 체온 상승이 나타나면서 평소보다 빨리 취하거나 숙취가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음주 후 물놀이 등 야외활동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센터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음주방법'을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음주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실천 수칙은 △자신의 주량 바로 알기 △상대방의 주량 존중하기 △식사 후 안주와 함께 음주하기 △약물 복용 시 음주하지 않기 △천천히 마시기 등이다.

김대진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여름철에는 음주가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더욱 커지는 만큼 올바른 음주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중독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따뜻한 나눔 온기 퍼져 2(題)

고령·홀몸 가구에 보양식 전달

익산시는 29일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함열읍 새마을부녀회와 손잡고 고령 가구를 위한 '복날 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고구마순 김치와 반찬을 나누며 큰 호응을 얻었던 오산면 주민위원회 활동에 이어, 배후마을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농촌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주민활동으로 역량을 키워온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됐다. 그동안 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단발성 봉사활동을 행정 지원 시스템과 결합해 한층 체계적인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돌봄 모델'로 확대·재편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날 함열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취약계층의 기력 회복을 도울 삼계탕을 정성껏 끓이고 시원한 제철 물김치를 직접 담갔다.

부녀회원들은 고령 가구를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 보양식을 배달했다. 이와 함께 폭염 속 이웃의 안부를 꼼꼼히 살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천권 농촌활력과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촌 마을 구석구석까지 민·관 협력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이 든든한 멍석을 깔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지속 가능한 밀착형 농촌 돌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현동 7개 단체, 생수 나눔

"시원한 생수 한 병 드시고 잠시나마 더위 식히세요"

익산시 모현동 7개 단체가 29일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생수 나눔 봉사에 나섰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나눔에는 모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발전위원회 등 7개 단체가 함께한다.

생수 나눔은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롯데시네마 사거리와 익산농협 배산지점 사거리 등 2곳에서 진행된다. 7개 단체 회원들이 3일간 생수 1,200병을 나누며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시원한 쉼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와 '익산애(愛) 바른주소 갖기'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임성숙 모현동장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잠시나마 작은 오아시스가 되길 바란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생수 나눔 봉사에 함께해 주신 7개 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모현동 7개 단체는 매년 무더위 생수 나눔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과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지역 안전망 구축

유관기관 협력 금강하구둑 자살예방 체계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군산경찰서 및 군산소방서와 함께 추진 중인 '금강하구둑 생명안전 강화구역 조성'에 신속한 협조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금강사업단 직원이 군산경찰서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금강하구둑은 야간 유동인구가 적고 수변 접근이 용이한 구조적 특성으로 지난 수년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인한 사고와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구역이다. 이에 따라 금강사업단,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의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금강하구둑 생명안전 강화구역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금강사업단은 하구둑 주변의 생명안전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약 5억원을 투입해 하구둑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인명구조함 교체, CCTV 추가 설치, 방조제 긴급구조 진입로 등 안전시설 구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뜻깊은 일에 관계기관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새만금 핵심 현안 논의

김재준 시장, 새만금개발청 방문… 성장기반 조성 요청

김재준 군산시장은 29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양 기관장이 처음 만나 새만금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해 새만금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 기반 마련과 핵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새만금 1권역 산업용지 확대 △새만금 산업용지(4·9공구) 조기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내 새만금 신항 제외 △공공폐수처리장 신설 등 6개다.

특히 김 시장은 이차전지·첨단산업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늘면서 산업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새만금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산업용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항만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항만으로 별도의 계획체계를 적용받는 만큼, 계획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입주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폐수처리 기반,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내부 접근성을 높일 광역 교통망 등 새만금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사업의 추진을 강조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군산뿐 아니라 전북과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 갈 핵심 공간"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이 새만금 기본계획과 정부 사업에 반영되도록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폭염 속 도로 식힌다… 익산시 살수차 운영

하루 2회 이상 순회

익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주요 도로의 열기를 낮추고 시민 체감온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5일부터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폭염경보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 노면의 축열현상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용 살수차를 활용해 익산역 일원과 중앙로, 무왕로를 비롯해 함열읍, 황등면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하루 2회 이상 순회 살수를 실시하고 있다.

살수 작업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노면의 온도를 낮춰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차량 타이어 파열 등 고온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폭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 '성과'

보건복지부 '간이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현철)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전국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참여자 지원 실적과 자활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실시됐다. 참여자 증감률과 자산형성 지원, 수익금·매출액 증가 폭 등 3개 항목 6개 문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읍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자립 지원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가운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단의 매출과 수익을 높이는 등 주요 평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내실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종사자 성과금과 참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참여 주민의 자립을 뒷받침한 정읍시의 행정적 노력과 자활센터 종사자, 참여 주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질 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해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안전교육'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교육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난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및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3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감염병 위험을 예방하고, 올바른 위생 습관을 익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은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전문간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아동 눈높이에 맞춘 체험 및 실습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7월 28일 14시 군산경포초등학교 △7월 30일 11시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8월 7일 11시 군산일맥원에서 진행된다.

양 기관은 여름방학 중 위기가정 및 양육시설 아동의 안전 위협 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선유도, 서해안 대표 노을 명소 부상

1000여 명 관광객 방문 여름 노을축제 마무리

군산시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낙조 명소인 선유도 해수욕장이 아름다운 노을과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여름철은 물론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맑은 바다,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풍경이 어우러진 군산의 대표 관광지다. 특히 해 질 무렵 붉게 물드는 서해의 노을은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하며, 사진 촬영과 산책을 즐기기 좋은 명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2026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타악 퍼포먼스와 디제잉 파티, 노을멍대회,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를 찾은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이번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축제의 배경이 된 선유도의 아름다운 노을과 해변의 풍경은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서해의 붉은 일몰을 감상하고, 고군산군도의 절경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선유도는 해수욕뿐만 아니라 해안 산책과 자전거 여행, 고군산군도 드라이브 등 다양한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과 연인, 친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군산의 대표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유도는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군산의 대표 해양관광지"라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치유농업 인재 44명 양성

치유농업 가치 확산 기대

정읍시가 29일 '2026년 치유농업 아카데미 기본과정' 수료식을 열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44명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예비 치유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생 44명은 총 17회, 72시간에 걸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교육은 치유농업의 이해와 관련 법령, 치유농업 자원 활용, 치유 활동 기획·운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치유농장 현장 견학을 포함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실제 농장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생들은 다양한 치유농업 사례를 공유하고 농장 운영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생 간 정보 교류와 협력망도 형성해 앞으로 치유농장 운영과 치유 활동 개발에 필요한 실무 기반을 다졌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료생들이 정읍 치유농업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치유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장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9,488억원 추경안 편성

687억원 증액 "추석전 활력지원금 130만원 지급 추진"

민선 9기 심덕섭호가 '군민활력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687억원이 늘어난 취임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본예산(8,801억원)대비 687억원(7.8%)이 증가한 9,4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1억원(7.92%)이 늘어난 9,280억원, 특별회계는 6억원(2.62%)이 늘어난 208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창군은 이번 추경을 장기화 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민선 9기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군민활력지원금(151억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석전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지원(28억원) 추가 반영 등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민선9기 첫 번재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선도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농어촌기본소득 연구용역비(3천만원)를 반영하고 정부의 본 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10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노후장비 교체 지원(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24억원)을 추가 반영해 군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8기의 성과를 발판으로 민선9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담아낸 예산이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고창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강화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진행된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계약금 10%를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서 2026년 1월 1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 및 18세~39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주체(LH)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 및 입주(예정)자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공급주체와 임대계약을 체결 후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내달 3일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과에 신청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맞으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에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신규 통합돌봄 전담요원 역량 강화 교육

고창군이 '신규 통합돌봄 전담요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나섰다.

역량강화 교육은 군과 보건소 이외에 이달부터 통합돌봄팀이 신설된 고창읍을 포함해 14개 읍·면에 배치된 19명의 통합돌봄 전담요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있다.

고창군은 올 상반기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로 386명을 찾아냈고, 최종 295명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고창군보훈회관에서는 읍·면 통합돌봄 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행복이음 시스템 내 통합돌봄기능 활용법 △국가돌봄서비스 및 고창군 지역특화서비스 안내 △보건소 주요사업 안내 △읍·면별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 애로사항 공유 등 실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다뤘다.

동시에 군청 소속 통합돌봄 담당자가 각 읍·면을 방문하면서 전산시스템 활용심화 과정을 다루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고창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군민 체감형 공약 이행 '속도'

민선 9기 첫 100일 실행 계획·추진계획 점검

부안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민선 9기 군민체감형 100일 실행계획 및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핵심 군정 철학인 함께 누리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와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이 참석해 25개 부서가 발굴한 군민체감형 실행과제 127건과 공약사업 72건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기본소득과 돌봄, 의료, 문화, 주거,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부안형 기본사회를 군정 전반에 본격 추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안형 기본사회 기반 마련을 비롯해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 기반 구축과 민생지원금 지급 준비, 영농형 태양광 전면 보급,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군민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틈새돌봄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위도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임산부·어르신 의료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생활 분야에서는 문화ON 프로젝트와 부안 문화패스,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마을방범 CCTV 확충, 청년특화주택 100세대 공급, 심성제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안사랑인 제도와 체류형 관광패스 운영, 야간관광 활성화, 부안사랑 상품권 800억 규모 확대 발행, 로컬푸드 이커머스 및 라이브커머스 확대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 9기의 첫 100일은 앞으로 4년 군정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이 '정말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형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군민 삶의 기본을 두텁게 보장하는 새로운 군정 운영체계"라며 "모든 정책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실행과제와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선9기 출범 100일 시점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는 한편 군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폭염 속 농업인 건강 보호 강화

안전교육 및 대응 물품 지원

고창군이 여름철 폭염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교육에 나섰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무장면 대산마을에서 극한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선 현재(27일 기준) 전국적으로 올해 139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도 8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촌마을 교육을 통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폭염 대응 물품도 지원했다.

아울러 농작업 안전수칙과 농업기계 안전이용 요령, 농작업별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에 힘썼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AI기반 로컬창업 조성 창업루키즈 교육 1단계 심사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역 주민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부안형 AI기반 올데이 올라운더 B-루키즈 지원사업'의 창업루키즈 육성 교육을 마무리하고, 창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1단계 심사를 지난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총 48시간 과정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 분야에서 1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국내 상위권 온라인 셀러인 '투트랙' 이규환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AI를 활용한 해외구매대행과 풀필먼트 온라인 판매 교육·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부안군 AI기반 로컬 창업조성 사업은 '교육➜단계별 지원금 지급➜1:1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었다.

교육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지원금이 단발성 소비로 사라지지 않도록 현장 감각을 갖춘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자립 성공률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안군 농촌활력과 김선채 과장은 "선발된 교육생들이 안정적인 온라인 창업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멘토링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에서 시작되는 종자 강국 코리아"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김제시는 29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로 민선 9기 핵심 5대 공약인 'AI 첨단산업과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한 미래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식량안보와 농업경쟁력 핵심인 종자산업 발전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는 김제시를 중심으로 종자산업의 연구·생산·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첨단 정밀육종 연구센터, K종자비즈니스센터, 스마트온실 등 혁신 거점을 조성해 종자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1년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에 이어 2016년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를 지정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선도하는 종자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총사업비 1,738억원(국비 1,683억원, 시비 55억원),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구)김제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 273ha에 종자기술 혁신부터 수출에 이르는 종자산업 밸류체인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은 식량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수 품종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육종 방식인 교배와 선발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면, 디지털 육종은 방대한 유전체 정보와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육종 조합을 설계하고 작물 특성을 예측해 육종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서성·내한성· 내병성 품종은 물론 고기능성 품종 등 복합 특성을 갖춘 맞춤형 품종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 사업을 통해 김제시의 지역 낙후도 개선과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김제시를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부안군에 농기계 기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현주)와 함께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영농 지원을 위한 농기계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기탁은 한빛원자력본부가 추진하는 지역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농가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기탁받은 농업용 굴착기 2대, 소형관리기 5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은 물론, 관내 모든 농업인이 고루 유용하게 공동 활용할 수 있어 상생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빛원자력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철저히 관리·운영해 관내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노인전문요양원 다제약물 관리사업 직원교육

김제시는 김제노인전문요양원(원장 김성순)이 29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제노인전문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장기요양시설 모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 복용 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중복 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은 전문약사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올바른 복약관리 방법, 약물 이상반응 관찰 및 보고체계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순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약물관리 역량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의회, 제373회 첫 임시회 폐회

주요 현안 점검 및 총 14건 안건 심의·의결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2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 협의 강화와 정책 제안의 반영 등 협치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위한 책임 있는 군정 운영을 제안했고 이어 박태수 의원은 '국가균형성장시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부안의 미래를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 등 국가정원 조성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현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부안군의회 첫 회기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회기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며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식품 가공 창업 기반 강화

고창군이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공음면 선동리에 위치한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운영됐다. 센터는 고창군 식품산업의 균형발전 거점공간으로, 신규 창업 지원, 가공 전문인력 양성, 가공제품 생산,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공유 가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은 지난 6월 16일~7월 21일까지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가공장비 작동 원리 및 운영방법 △현장 위생관리 △볶음가공 실습 △식초 제조 실습 △장류(고추장) 가공 실습 △착즙음료 가공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습득과 창업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화장품, 북미 수출길 넓혔다

시, LA 상담회·박람회 연계 지원
220억 수출상담·63억 계약 추진
해외시장 다변화 기반 마련

남원시가 추진한 미국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한 관내 화장품기업들이 총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수출상담과 432만 달러(약 63억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3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8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이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져 지역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남원시는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화장품 전문 박람회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2026(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2026)'에 참가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남원시를 대표하는 화장품기업인 ㈜원스킨화장품, ㈜제너럴바이오, ㈜코빅스, ㈜한미화장품 등 4개 기업이 참가했다.

참가기업들은 기능성 기초화장품과 천연물 기반 스킨케어 제품, 이너뷰티 제품 등을 선보이며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등 북미권 바이어를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남원시는 기존의 단순 전시·홍보 중심 해외박람회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지 바이어 상담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LA 현지 수출상담회와 국제 박람회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와 직접 상담하고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후속 상담과 계약 협의를 지속 추진해 계약 성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북미 화장품 시장은 세계 최대 수준의 소비시장인 동시에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략시장이다. 남원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북미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와 유럽 등 해외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노인일자리 4,867명 '역대 최대'

사업비 221억원 규모 확보
시니어클럽 중심 수행체계 강화

완주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4,867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는 전년보다 347명 늘어난 수치로, 군은 총 22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은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 전문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와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은 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사업 규모는 2022년 52개 사업단 2,555명에서 2026년 74개 사업단 4,867명으로 확대돼 사업단은 22개, 참여인원은 2,312명 증가했다.

사업예산 역시 같은 기간 89억 원에서 221억 원으로 132억 원 늘어나 노인일자리 기반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완주군은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장형사업단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은 물론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클럽 중심의 전문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발전방향 모색

대통령 직속 특위 순회간담회
생활·사회서비스 연계 확대 논의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지난 28일 유용미생물은행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공유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직접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지역 변화를 이야기하는 주민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정책 추진과 주민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과 생활·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순창군은 이에 발맞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의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생활·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연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함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순창형 기본사회'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기본소득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지역현안 해결 당정 협력 강화

민주당 지역위와 당정간담회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논의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장임순 지역위원회와 대선공약사업,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공모사업 등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충모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 윤지홍, 임종명 전북도의원, 이상현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원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시 주요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남원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토 중부권·남부권 연결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 △남원성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등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예산 및 주요 공모사업으로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국립 판소리산업 복합단지 조성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지리산권 생태관광 탐방로 개선 △귀석지구 배수개선사업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등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섬진강유역환경청 남원 유치 △국립 지리산 숲체원 유치 △국지도 60호선 및 국도 24호선 반영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 방안을 건의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과 국가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원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문화유산연구소 협업모델 '눈길'

연구성과홍보공간 개관
전시·체험형 문화공간 조성

완주군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선도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서면 연구소 내에 전북지역과 완주군의 역사·문화 주제 전시 및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성과홍보공간을 개관했다.

성과홍보공간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군은 이 공간이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는 소통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연구소는 2019년 개청 이래 원상운 고분군과 남계리 유적 발굴조사, 순교자 유해 DNA 분석 연구 등 지역 유산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로 완주군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군과 연구소 협업으로 이뤄진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국가유산 보존관리, 학술대회 개최,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은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국가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그간 완주연구소와 함께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조사·연구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전시·교육·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결실'

지난 6월 최종 인증 획득
29일 현판 제막식 열어

<사진=남원시>

남원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29일 시청 입구에서 뜻깊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증은 남원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5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한 이후, 올해 3월 서면심의 결과 통보와 5월 11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대면 심의를 거쳐 6월 5일 최종 인증을 확정지었다. 인증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30년 6월 4일까지 총 4년이다.

이날 열린 현판 제막식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남원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 대표 10명,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남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어린이들이 직접 행사에 함께해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도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업무보고 체계 바꿔야"

산건위 주요업무 보고 돌입
표준화된 업무보고 양식 제안

제10대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성)가 29일 수소신산업담당관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소신산업담당관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업무보고는 부서별 작성 방식이 달라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사업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무보고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이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보은매립장 이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정책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예산 변동 사업 등을 업무보고 본문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신규·추경사업과 하반기 주요 행사는 별도 자료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업무보고 양식을 마련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수도권 여행업계 대상 관광설명회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예비 글로벌축제로 도약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수도권 여행업계 관계자와 관광기자협회 기자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쳤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28일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서울·경기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및 기자단을 초청해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를 담당하는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와 산업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2026 순창장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전략을 비롯해 △장류산업과 발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산업관광 콘텐츠 △고추장민속마을 △발효테마파크 △강천산군립공원 등 순창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순창군은 장류축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여행사들의 상품 개발과 모객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 관광 콘텐츠와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군은 이를 향후 관광상품 개발과 축제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통합돌봄 특화사업 현장 밀착 점검

완주군이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망을 다지기 위해 지역 내 통합돌봄 특화사업 현장을 직접 돌며 상반기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의료와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8개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수행기관 점검을 이어오고 있으며, 29일에는 이종훈 부군수가 서비스 제공 현장을 직접 찾아 이용 주민과 수행 인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부군수는 맞춤형 운동을 지도하는 '기운업(up)! 방문운동지도' 현장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이뤄지는 '우리동네 단골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울러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수행기관을 찾아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이 전개하는 주요 특화사업은 식생활을 돕는 '완주애(愛) 기찬배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돌봄 소소수리', '완주애(愛) 가사서비스'를 비롯해 '완주애(愛) 방문목욕', 요실금을 케어하는 '완주애(愛) 기저귀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약국과 연계해 복약관리와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약국'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군은 현재 돌봄 대상자 239명에게 총 1,05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며 체계적인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완주군의 통합돌봄 신청자는 노인 인구 1만 명당 87명으로 전국 평균(41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병오창의 120주년 특별 연합전시 개막

순창군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병오창의 120주년 특별전 '나라는 멸할 수 있어도 의병은 멸할 수 없다'를 순창장류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미술관 연합전시에 선정된 사업으로, 병오창의 120주년을 맞아 정읍 태인 무성서원에서 면암 최익현과 돈헌 임병찬을 중심으로 전개된 병오창의를 조명하고, 활동의 주요 무대였던 순창 항일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키다' △'병오창의 활동의 중심, 순창' △'최익현과 순창 12의사'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순화아문 현판, 순창 지산사 최익현 초상, 동맹록 등 병오창의의 역사와 의의를 보여주는 주요 유물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노무 분쟁 예방 사업주 교육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는 지난 2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례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남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공연 '예술 담은 하루' 1회차 성황

장수군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예술담은나라의 찾아가는 공연 '방문형 음악회-예술 담은 하루' 1회차 공연이 장수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찾아가는 공연의 첫 번째 무대로, 학생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에는 이대정랑 지휘와 곽승연 연출을 비롯해 바리톤 석상근, 플루트 김정은, 바이올린 박민지, 클라리넷 한아름, 바순 강소영, 색소폰 손주앙, 드럼 윤영훈, 피아노 최아현 등 전문 연주진과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풍성한 반주와 함께 바이올린, 플루트, 색소폰 등 각 악기의 개성을 살린 연주가 이어졌으며, 지브리 OST '이웃집 토토로', '맘보',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등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또한 단순한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전문 연주자의 해설을 곁들인 스토리텔링과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지휘법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이 음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엔솔루션 길병희 대표 무주군에 300만원 기부

㈜이엔솔루션 길병희 대표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엔솔루션은 무주읍에 자리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업체로 4년 연속 3백만 원씩 1천2백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길병희 대표는 "고향 무주발전과 이웃의 행복을 후원하는 일에 마음을 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걸음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엔솔루션은 고향사랑기부 외에도 2022년에는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2백만 원을 기부했으며, 2021년에는 무주어린이집과 안성만나지역아동센터에 각 5백만 원 상당의 태양광 설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공식 페이스북 '소셜아이어워드 2026' 대상 영예

진안군이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상식인 '소셜아이어워드 2026'에서 지방자치기관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을 담은 감성 콘텐츠를 통해 방문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왔으며, 지역 밀착형 주제를 친근하고 공감 있게 전달하는 한편 군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셜아이어워드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5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국내 대표 소셜미디어 분야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진안군은 △2021년 공공정보 혁신대상 △2022년 공공 유튜브 분야 대상 △2023년 군·구청 유튜브 분야 대상 △2024년 군·구청 유튜브 분야 대상 △2025년 군 페이스북 분야 대상에 이어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북 기업들, 지역 상생 실천 눈길

전북도시가스, 무주군에 승합차 기증

게이트볼협회에 전달 어르신 이동 편의 높여

전북도시가스(대표 김홍식)가 무주군에 승합차(11인승, 4천여만 원 상당)를 기증하며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와 무주군게이트볼협회(회장 이보희)를 통해 무주군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김홍식 대표는 "지난 2014년 기증했던 승합차가 노후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차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무주군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의 각종 대회 참가와 교류 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잘 활용이 돼서 이동 편의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버님께서 고향 무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김광수 회장기 대회 개최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시가스는 전북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 18년째 '목정 김광수 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한전 전북본부, 임실군에 성금 기탁

임직원 100명 자발적 참여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가 임실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직원 100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력사업과 전기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기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미래 성장동력 발굴 본격화

전북연구원과 미래전략 워크숍 39개 핵심사업 추진 방향 논의

장수군은 지난 28일 전북연구원 연구진들과 함께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장수군의 새로운 미래상 설계를 위해 '장수군 미래전략계획 수립 실·과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수군 미래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북연구원과 장수군이 함께 발굴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원 8명과 장수 군정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상권 육성, 공공급식, 산책로 조성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터 산림·관광, 농생명·축산, 에너지·AI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대형사업까지 총 39건의 사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연구진과 사업 담당자들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 지역 여건과의 적합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사업에는 담당 부서의 실무 의견을 반영하고,장수군이 발굴한 사업에는 연구진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과 검토를 더해 사업별 추진 방향과 보완 과제를 구체화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장수군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이 구체적인 정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친환경 연무소독 여름철 방역 총력

마을,관광지,공원 등 총272개소 주1회 이상 친환경 연무소독 실시

임실군이 여름철 모기와 파리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연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관내 12개 읍면 마을을 비롯해 관광지, 공원, 하천변, 야외체육시설등 총 272개소를 대상으로 17명의 방역소독 인력을 투입해 친환경 연무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역은 모기 등 위생해충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오전6시부터 8시까지,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온상승과 강우등 해충 발생 여건에 따라 취약지역은 방역 횟수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은 물론 관광객 이용이 많은 관광지와 공원, 야외체육시설까지 촘촘하게 방역을 실시해 감염병 매개 해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친환경 연무소독은 살충제를 물에 희석한 뒤 초미세 입자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막소독과 달리 연기와 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저연기·저취(低煙·低臭)방역 방식이다.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도입하고 있는 친환경 방역기법이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가 적게 발생하는 연무소독을 보고 방역 효과가 낮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초미세 입자의 약제가 모기와 파리등 해충의 서식지 깊숙이 침투해 성충은 물론 유충까지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거 밀집지역과 공원, 하천변, 관광지등 위생해충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회 방역을 지속하는 한편, 기상여건과 해충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집중 방역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불꽃이 춤추는 계곡의 밤' 예고

8월 1일, 8일, 15일 무주구천동 계곡서 '낙화놀이'

무주군이 구천동 계곡에서 청정 자연과 전통문화를 접목한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내달 1일(오후 6시~오후 9시)과 8일, 15일 '무주 구천동 향연, 불꽃이 춤추는 계곡의 밤'이 펼쳐질 예정으로, (사)무주군관광협의회, 무주구천동관광연합회, 무주구천동관광특구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피서지인 무주 구천동 계곡의 아름다움과 시원함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8월 1일 개막 공연에는 '7080세대'를 대표하는 인기 포크그룹 '소리새'와 '마음과 마음'이 출연해 감성 짙은 통기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8월 1일과 8일, 15일 '무주 구천동 향연, 불꽃이 춤추는 계곡의 밤'이 펼쳐진다 <사진=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기도 한 '무주안성낙화놀이'는 뽕나무 숯가루, 소금, 말린 쑥 등을 한지로 감싼 낙화봉을 긴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는 전통 민속놀이로, 불꽃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꽃잎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탄성을 자아낸다.

/무주=최의호 기자

8월부터 '장수사랑상품권' 운영 개편

모바일 비중 80%로 확대 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으로

장수군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품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장수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상품권 발행 비율이 모바일 카드형 80%, 지류 20%로 변경되고 개인별 상품권 구매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를 유지한다.

이는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사용 증가에 따른 이용 편의성 및 유통관리 효율성 제고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정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은 오전 9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애플리케이션 'CHAK(착)'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도 같은 날부터 관내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된다.

다만 금융기관별 업무 시작 시간과 지류형 상품권 판매 시각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 지원

전북 환경보건센터 연계 교육 2회차에 걸쳐 교육·체험 활동

무주군은 임산부와 임신 준비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해 환경보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5일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되며 1차 교육은 29일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15명이 참석해 전문강사로부터 생활 속 유해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임산부와 임신 준비 여성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생활 속 실천수칙을 공유했다.

이어진 체험 활동 시간에는 바늘쌈지 만들기 및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선화 의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임신 전후 시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유해 요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임산부들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회 차 진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의 멋과 흥 담은 '임실행차!! 고,고,고' 출발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차별화된 거리형 노상 공연 프로젝트 "임실행차!! 고,고,고"가 지난 26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임실의 고유한 역사적·환경적·전통적 공동체 문화의 핵심 가치를 담아낸 참여형 문화관광 콘텐츠다. 임실 치즈를 상징하는 '맛', 청정 임실의 자연을 담은'멋', 그리고 지역 전통예술에 내재된'흥'을 주제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등 임실의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며 총 15회에 걸쳐 관람객을 만난다.

전통 취타대 행렬과 임실필봉농악의 길풍류 및 길놀이가 결합된 가·무·악 통합형 거리 퍼포먼스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오이 재배농가 대상 유통 전략 교육

장수 오이 시장 경쟁력 강화 나서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지역 내 오이 재배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유통전략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품질 오이 생산과 출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통전문가를 초청해 농가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산공판장 박진형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주제로 △오이 도매시장 동향 △품질관리 및 선별·포장 기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출하 요령 △주요 품질 이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농가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출하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이어갔다.

최철학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장수군 오이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필수적이다"며 "안정적인 공동출하 체계 구축을 위해 오이 재배농가 작목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생산부터 선별,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출하 기반을 강화해 장수 오이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유태열 가나안전 대표 부안군에 3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유)가나안전 유태열 대표가 고향 부안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가나안전은 부안군 농공단지에서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로, 지역 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부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유태열 대표가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태열 대표는 "부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부안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 증진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시 6·25전쟁 영웅 故 김민영 상병 유족에 훈장 전수

금화지구 전투서 공 세워 화랑무공훈장 전수

정읍시가 6·25전쟁 금화지구 전투에서 공을 세운 고(故) 김민영 상병의 유족에게 73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시는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고인의 아들 김기옥 씨가 참석한 가운데 무공훈장 전수식을 열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생전에 훈장을 받지 못했다.

아들 김기옥 씨는 "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공적을 국가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뒤늦게나마 명예를 되찾게 돼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고 김민영 상병과 같은 호국영웅들의 희생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우하고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는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고인의 아들 김기옥 씨가 참석한 가운데 무공훈장 전수식을 열었다 <사진=정읍시>

'그레이트 익산아리랑' 김유라 익산시 홍보대사 위촉

익산 출신의 실력파 차세대 소리꾼이 고향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전령사로 전격 나선다.

익산시는 29일 대한민국 국악계의 젊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악인 김유라를 익산시 공식 홍보대사로 낙점하고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어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익산에서 태어나 자란 인재이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누구보다 깊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유라는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소리꾼이다.

2022년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대상에 이어, 올해 열린 제26회 공주 박동진 명창·명고대회에서도 판소리 일반부 대상을 거머쥐었다.

김유라는 향후 2년간 익산시 공식 홍보대사 자격으로 시의 주요 행사와 축제,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참여한다. 사통팔달 교통망과 백제 역사 유적 등 익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옥야라이온스클럽, 1,0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이웃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익산시에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는 든든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29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익산옥야라이온스클럽(회장 이현호)이 삼계탕과 냉동 핫도그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돼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호 익산옥야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장수군 산서면,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 개최

장수군 산서면은 산서초등학교에서 '산서면 주민친화 물놀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근에 마땅한 물놀이 시설이 없어 아쉬움을 느끼던 지역 어린이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방학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단체와 학교, 학부모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행사 준비부터 운영까지 역할을 분담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주최한 산서면주민자치위원회는 행사 전반의 운영과 전기 안전을 책임졌으며, 주관을 맡은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와 후원에 참여한 산서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쉼터를 마련하고 음식과 간식을 준비했다. 산서의용소방대는 행사장 시설 관리와 안전관리를 전담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행사 기간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으며, 면민과 방문객 모두가 무더위를 식히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화여대 봉사단, 남원서 농촌 봉사활동 펼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32여명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남원시 덕과면 일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마다 덕과면을 찾고 있는 봉사단은 고령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올해는 덕과면 솔바람권역센터와 수촌마을에 머물며 농가 지원에 나섰다.

주요 활동으로는 깨 털기, 파와 깨 등 모종 심기, 농작물(고추, 깻잎) 수확 지원, 잡초 뽑기 등 마을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도 마을 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교류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번 농활에 참여한 봉사단 대표 김지연 학생은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 공덕면 새마을부녀회, 폐농약병 수거봉사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자)가 29일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약병을 수거하며 농촌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실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덕면 새마을부녀회원 20여 명은 이날 마을별로 수거해 둔 폐농약병을 한곳에 모아 분리·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폐농약병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운반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다. 특히 폐농약병의 올바른 처리는 농업환경 보호는 물론 안전한 영농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고수면지사협 어려운 이웃 영양음료 나눔

고창군 고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성숙, 민간위원장 서학용)는 지난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영양음료 나눔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위원들은 취약계층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단백 영양음료를 전달함과 동시에 폭염 속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밀착형 복지를 실천했다.

서학용 민간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식사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영양음료를 통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숙 고수면장은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누구나 살기 좋고 행복한 고수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一事一言〉

정교유착이라는 봉건적 유령, 민주주의의 근간을 찌르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종교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가장 숭고한 기본권 중 하나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영적 위안과 삶의 가치를 찾을 자유를 누린다. 개인의 신앙은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사유 영역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틀이 세속의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순간, 이는 신앙의 영역을 넘어 민주 주의 공론장을 흔드는 폐악으로 변질된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의 정치권 집단 당원 가입 및 경선 개입 의혹은 정교유착이 더 이상 과거의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이 아님을 보여준다. 교단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특정 정당의 책임당원으로 침투하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려 한 정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종교집단의 이 같은 조직적 움직임이 어느 한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세를 과시하며, 양당 가입을 독려하거나 지역 정가를 기웃거리는 형태는 이들의 목적이 고결한 신앙의 실현이 아닌 '권력과의 거래'에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지파별 인허가 문제, 교단 관련 민원 해결, 수사 회피 등 지극히 세속적인 이권과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을 도구화한 것이다.

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개인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와 그 궤를 달리한다. 개인의 범죄가 한정된 피해자에게 한시적 비극을 초래한다면, 정교유착을 통한 정당 정치의 왜곡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그 피해를 수천만 전체 국민에게 돌려준다. 신도라는 조직화된 표밭을 무기로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인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들의 불법적 요구에 눈을 감는 악순환은 국가의 자원을 사적으로 탕진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려 한 정치인과 정치세력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을 방조하거나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은 민주적 정통성을 상실한 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여야라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엄격하고 다른 한쪽에는 미온적인 '선택적 수사'나 '늑장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목숨처럼 지키며, 관련자 전원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중세 봉건시대의 종말을 고한 핵심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分離)였다. 신의 이름으로 세속의 권력을 통제하려 했던 시대의 야만에서 벗어나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싹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교유착이라는 봉건적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피 흘려 세운 민주주의의 탑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치는 종교의 세력 확장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종교 역시 정치인의 표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는 단지 몇몇 개인의 부정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전체가 정교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불법적으로 개입한 조직과 정치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여 정당 정치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유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완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 독자투고 |

활짝 열린 방화문, 우리 안전에는 큰 구멍이 됩니다

며칠 전 관내 한 아파트 단지로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피난계단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문을 활짝 열어둔 모습을 발견하고 관계자에게 시정을 안내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한 입주민이 다소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름이라 열어둔 것뿐인데 이게 왜 불법이냐", "내 집 앞 방화문 좀 열어둔 걸로 무슨 과태료까지 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었다.

사실 이런 반응은 낯설지 않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은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를 단순한 생활의 편의 정도로 생각한다. 개인 공간을 조금 활용하거나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인식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화재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오며, 그때는 평소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26년 5월 8일부터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시행되면서 신고 대상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나 대형 판매시설 등 상업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포상제가 이제는 도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제는 복도와 계단참에 무심코 쌓아둔 택배 상자나 자전거, 유모차, 화분, 또는 환기를 위해 고정해 둔 방화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방화문은 단순히 공간을 구분하는 문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와 화염이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급속히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피난·방화시설이다. 평소에는 그 역할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에는 단 몇 분의 차이로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이 된다. 또한 피난계단과 복도는 화재 시 주민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는 대피 통로인 만큼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불길보다 먼저 번지는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은 소방관의 단속이나 행정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내가 잠시 편리하기 위해 열어둔 방화문 하나, 잠깐 놓아둔 적치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올여름 우리 아파트 복도와 방화문을 한 번만 더 살펴보자. 스스로 점검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화재예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소방경 하경옥

사 설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북도가 성공의 기반을 다져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이행을 위해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별법 개정과 산업단지 조성, 수소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까지 투자 실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서 기대만 남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자 발표가 아니라 투자 이행이다. 이번 전북도의 대응은 '유치 중심 행정'에서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다. AI와 로봇,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에 인재 양성과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까지 함께 준비한다면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아직은 대부분이 계획 단계다. 특별법 개정과 각종 특구 지정은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뒤따른다. 현대차 역시 사업 계획 확정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 전북도에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기업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원한다.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면 투자 일정도, 협력기업 유치도, 일자리 창출도 함께 늦어진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전북 산업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기회다. 하지만 투자는 협약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공장이 가동되고 협력기업이 들어서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때 비로소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전북도는 투자 유치라는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으로, 약속을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현대차 투자의 성공을 넘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여는 길이다.

▲ 오늘의 시

발견의 기쁨 / 이 동 순

누더기처럼
함석과 판자를 다닥다닥 기운
낡은 창고 벽으로 그 씨앗은 날려 왔을 것
이다
거기서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고
창고 벽에 부딪쳐
그 억새와 바랭이와
엉겅퀴는 대충 그곳에 마음 정하고 싹을
틔웠을 것이다
사람도 정처 없이
이렇게 이룬 터전 많았으리라
다른 곳은 풀이 없는데
창고 틈새에만 유난히 더부룩 돋았다
말이란 놈이 그늘 찾아
창고 옆으로 왔다가 그 풀을 보고
맛있게 뜯어먹고 갔다
새 풀을 발견한 기쁨 참지 못하고
연신 발굽을 차며
히히힝 소리 질러댔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시집으로 개밥풀,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철조망 조국,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 등이 있다. 2003년 민족서사시 홍범도(전5부작10권)을 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한득수 임실군수

"사람이 머무는 행복한 임실" 실현

2026년 7월 1일, 제48대 한득수 임실군수가 공식 취임하며 민선9기 임실군정이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한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군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머슴"이라는 군정 철학을 천명하며, 군민 중심·현장 중심·실행 중심의 군정을 약속했다.
특히, 읍면장실 1층 이전,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 권위주의를 걷어내는 행정혁신을 민선9기 첫 과제로 제시하며, 군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한, '임실예산 1조원 시대'를 민선9기 핵심 비전으로 내걸고, 군민주권과 군민우선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삶 속 '손톱 밑 가시'를 하나씩 제거하는 디테일 행정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에는 제1호 결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처리하고, 올해 하반기 전 군민 대상 30만원 지급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부터 군민의 삶과 직결된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택한 그의 행보가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이라는 약속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분초를 아끼지 않고 일하겠다"고 다짐한 한득수 군수에게 민선9기 군정 청사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낮은자세로 소통하는 군수 다짐

Q. 민선9기 임실군수로 취임하신 소감은?

- 먼저, 저를 믿고 임실군정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임실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원하는 2만 5천여 군민 모두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임실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현장을 발로 뛰는 군수가 되어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 임실의 미래경쟁력과 성장전략을 위한 "예산 1조원 시대" 달성

Q. 민선9기 군정운영 방향과 방침이 있다면?

- 현재 임실군 예산은 약 5,300억원 수준입니다.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힘 있는 여당군수' 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해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군민주권·군민우선 최우선 가치
예산 1조원 시대 실현
탈권위 행정혁신 약속

연간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충하고, 여기에 대형 국책사업을 연계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규모의 이통장연수원 건립,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 사업, 옥정호 순환도로 연결사업 등 임실의 미래를 바꿀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 1조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임실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 실현

Q. 민선9기 군정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비전은?

- 민선9기 군정의 핵심 비전은 한마디로'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입니다. 행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풍요로운 농업경제, △감동짓는 문화관광, △살맛나는 교육복지, △군민우선 열린행정을 4대 군정 방침으로 정하고 모든 정책을 군민중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청년들이 정착하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임실을 만드는 것이 민선9기의 최종 목표입니다.

▲ 의료·농업·문화관광·교육복지·소통행정 실현

Q. 분야별 중점정책을 설명해 주신다면?

-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중심의 1차 의료체계를 확대해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임실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체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고소득 신품종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임기내 농업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고, 자원순환형 농업과 청년·귀농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분야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축제와 관광의 고장 임실답게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 성수산 왕의숲, 오수의견 관광지 등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와 연계한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관광 거점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명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래 머무를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군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군민주권·군민우선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소통광장'을 운영하고,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겠습니다.

▲ "군민이 주인이고 군수는 머슴이 되는 군민주권 실현"

Q.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 디테일 행정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 제가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실천했던,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군정에서 꽃피우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수많은 군민을 만나면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주권과 군민우선이라는 철학 아래 '손톱 밑 가시'를 하나씩 제거하는 디테일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뿌리깊은 권위주의부터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탈권위 행정의 일환으로 읍면장실을 1층으로 이전해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쉽게 책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군청 앞마당도 온전히 개방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 축산현장 경험 살려 군정에 더 큰 꽃 피우겠다

Q. 그 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평생을 축산 현장에서 일했고, 임실축협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경험은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군림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힘으로 축협을 혁신했습니다.

조합원 간 차별을 없애고,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해 조직의 원칙을 바로 세웠으며, 능력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서도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공직자가 일할 의욕을 갖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임실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 민생경제 회복, 군민의 삶 최우선

Q.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전하는 당부말씀은?

- 이번 선거를 통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혁신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발로 뛰겠습니다.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12개 읍면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참여형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 그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임실=한병열 기자